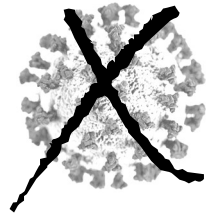


KMCC의 영적 투쟁 계획

COVID-19 팬데믹 동안

성주간 & 부활시기 동안



이유진 신부로부터의 편지

2020년 사순시기에 (3월31일)

그리스도안에 함께

와, 우리는 진짜 말도 안되는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전세계를 마비시키는 이 역사적인 사건은 많은 이들에게 불안과 스트레스를 야기시키고 있습니다. 아무튼, 우리의 정상적인 자유와 일상의 소중한 것들을 빼앗김으로써 우리는 그 모든 것들이 얼마나 더 귀한지를 느끼며 감사하게 됩니다. 많은 이들이 이 어둠 안에서 빛을 가져오려고 노력하고 있으며 그것은 선한 일입니다.

그런데 저는, 우리는 이 어려운 시간을 그리스찬으로써 어떻게 보내고 있는지? 물어보게 됩니다. 그러기에 우리에게 이 경험은 경배와 우리 하느님께 영광을 드리는 것으로 궁극적인 정점에 다다라야 합니다.

이집트 탈출 열번째 재앙이 있었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신들의 가정에 한 가족으로써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에 그들은 무엇을 했을까요? 그들은 경배를 드렸습니다.

그들은 하느님께서 알려 주신대로 경배를 드렸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예식에 따라 식사를 하고, 하느님의 자비와 섭리를 기억하며 해방을 위해 기도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느님께서 마련하신대로 이 모든 특별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지금부터 수년 후 우리는 이 시대의 가장 역사적인 때를 돌아보며 그리스찬들이 그리스도의 믿음을 충실히 지켰다는 것을 기억하게 해야 합니다. 우리의 기억은 우리의 가정에서 얼마나 더 잘 기도에 전념했는지, 현대 기술과 기도를 통해 그리스찬 공동체로써 얼마나 더 굳건하게 존재했는지로 채워져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 시간을 우리의 믿음에 대한 감사로 기억할 것입니다.

네, 우리는 손씻기, 사회적 책임을 가지고 집에 머물기, 이기적인 사재기는 하지 말고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어떤 방법이든 도움을 주기 위해 애써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찬은 거기에 머물러서는 안됩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선한 이들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하지만 충실한 가톨릭 신자들에게는 우리의 하느님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경배와 충실성으로 마지막 정점에 이르러야 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영적 투쟁 계획”을 만들었습니다. 이것은 KMCC의 일치를 이루고 그리스도를 우리 삶의 중심에 두고 불안이 고조되는 이 시기에 낙담하지 않도록 서로를 돕는 방법입니다.

이는 간단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모두가 이것을 함께 한다는 것입니다.

이 계획을 따라가고자 노력해 보십시오. 완벽하게 해야 한다는 걱정은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을 하느님께서 아십니다.

그동안에, 저는 모든 단체장들에게 그리고 모든 소공동체의 지역장들에게 당신이 그 그룹원으로 작은 부분이라도 연결되게 하기 위해 계속 애써 주실 것을 부탁드렸습니다. Zoom, Skype, Google hangout 등과 같은 다양한 비디오 회의 프로그램에 대해 알아보시고 노력해 보십시오.

당신이 조금만 시간을 내시고 노력해보시면 어렵지 않게 배울 수 있습니다.

이 아름다운 공동체에 하느님의 축복이 있기를. 저는 중심으로 우리 모두가 주님의 제단에 함께 모일 날을 고대합니다.

그리스도안에 중심으로
Fr. Eugene Lee
이유진 신부